



평가사업본부 평가관리팀 차장 송종호

#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따른 추이 분석

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등급별 출현율 및 경락가격과 2011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된 후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등급판정기준 개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.

## 주요 개정 내용

### ■ 등급 종류의 축소

-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 폐지와 1\*A~3D, E등 17개 등급을 7개로 축소하고 육질 1\*등급은 규격 A등급에서만 나오도록 육질등급과 규격등급의 연계성을 높임

### ■ 과도한 지방축적 억제를 위한 도체중과 지방두께 최적 범위 설정

-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는 상향 조정한 반면 등지방두께는 상향 시키지 않아 과지방 생산 억제효과(A·B등급 상한 도체중 2kg 상향, A등급 하한 도체중 3kg 상향, B등급 하한 도체중 4kg 상향 조정)
- 냉도체 등급판정에서 딱지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삼겹살 판정부위인 넓은등근과 몸통피부근 사이의 근간 지방 두께를 현행 5~15mm에서 5~12mm로 축소 조정

### ■ PSE육 선별을 위한 육질 판정항목 및 결합내용 세분화

- 육질등급판정 항목인 '조직감'을 '탄력도, 수분삼출도, 근육분리도' 등으로 세분화하고 심한 정도에 따라 2등급 또는 등외까지 하락가능토록 함
- '결합'의 내용을 '방혈 불량, 골절, 이분체 불량, 척추 이상, 농양, 근출혈, 호흡기 불량, 피부 불량' 등으로 구체화하여 결합 발생 예방에 대한 자료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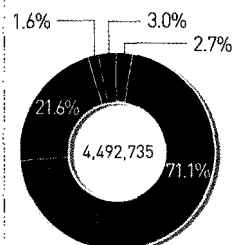
### ■ 등외등급 적용기준 강화

- 등외등급의 범위를 비거세 수돼지, 결합의 정도가 매우 심한 도체, 왜소한 도체(박피 60kg 미만, 탕박 65kg 미만), PSE·DFD육으로 판정된 도체, 잔반 급여 등으로 육질이 심하게 떨어지는 도체로 확대

## 등급기준 개정 전·후 돼지도체등급별 출현율 및 가격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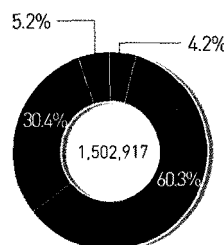
### ■ 육질등급 출현율

·개정 전(1.1~5.31)



1*	119,644두	2.7%
1	3,196,121두	71.1%
2	971,960두	21.6%
3	71,918두	1.6%
등외	133,092두	3.0%
합계	4,492,735두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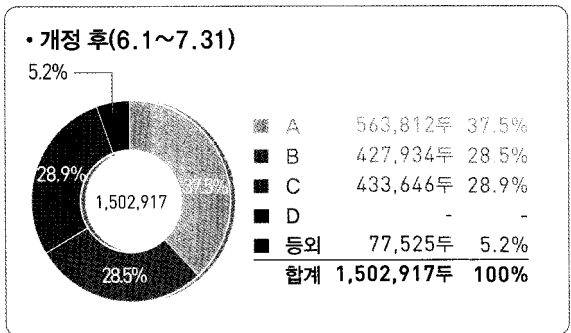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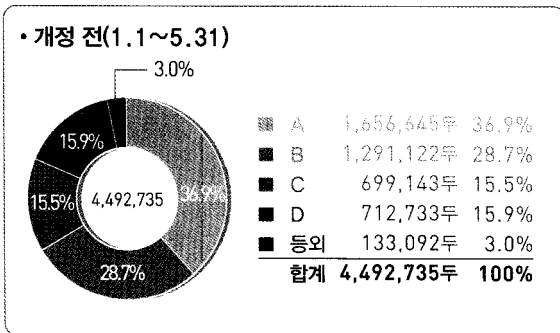
·개정 후(6.1~7.31)



1*	65,584두	4.2%
1	905,807두	60.3%
2	457,001두	30.4%
3	-	-
등외	77,525두	5.2%
합계	1,502,917두	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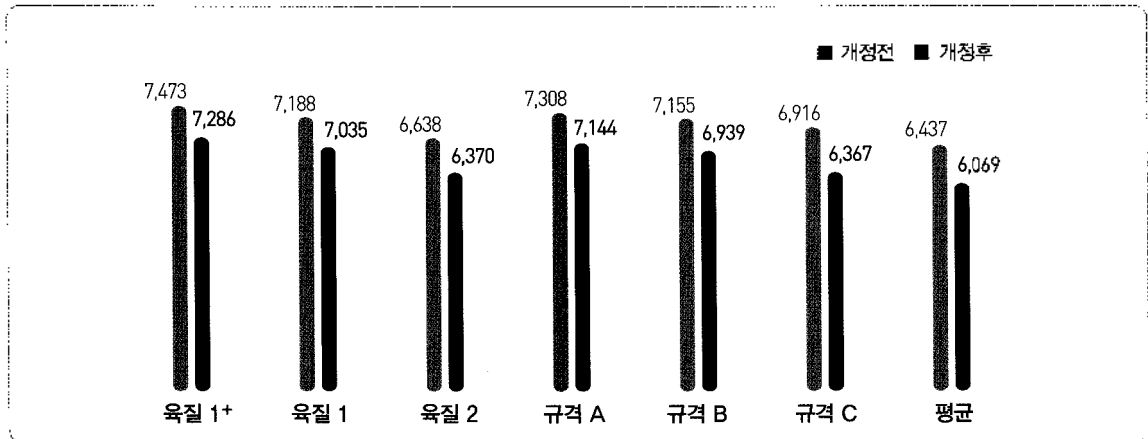


### ■ 규격등급 출현율



### ■ 등급별 경락가격 동향

(단위 : 원)



주) 전국 공판장·도매시장 평균가격이며, 평균은 등외등급을 포함.

### 변화에 따른 추이 분석

- 등급판정기준 개정으로 육질 1+등급이 1.5%p 증가하고, 육질 1등급이 10.8%p 감소한 것은 육질등급과 규격 등급간 연계성이 강화된 결과로 판단
- 등외등급의 출현율 및 가격상승의 비율이 특히 높아진 이유는 비거세 수돼지의 등외등급 포함 및 왜소돈의 도체중량 상향조정 등 등외등급의 적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른 결과로 판단
- 7월 들어 돼지도체 가격이 안정세로 보이면서 기준개정 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